

연예뉴스 HOT 5

BTS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라디오 차트 5위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라디오 차트에서도 신기록을 세웠다. 빌보드가 16일(한국시간) 공개한 최신차트(19일자)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는 '팝 송스' 라디오 차트에서 전주보다 한 계단 오른 5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이 이 차트에서 5위권 안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한국 대중음악 사상 최고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해당 차트는 미국 내 140여 개 라디오 방송국의 주간 방송 횟수를 집계해 순위를 매긴다. 노래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24위, '라디오 송' 차트 10위 등에도 오르면서 인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비·김태희 부부 집에서 소란피운 부부 벌금형

20여 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비·연기자 김태희 부부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 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와 부인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의 집을 찾아가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다. 이들은 비의 아버지가 과거 자신들의 쌀가게에서 쌀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애, 한국갤럽 '올해를 빛낸 텔런트' 1위



김희애

연기자 김희애가 '올해를 빛낸 텔런트' 1위에 올랐다. 한국갤럽이 11월 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에게 '올해 가장 활약한 텔런트'를 묻은 결과(2명까지 자유 응답),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김희애가 9.4%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tvN '청춘기록'에서 사해준 역으로 사랑받은 박보검(7.6%)이다. 그는 2016년 같은 설문에서 1위에 오른 후 5년째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tvN '사랑의 불시착'에서 호흡을 맞춘 현빈과 손예진은 각각 3위(6.5%)와 5위(4.6%)에 올랐다. 4위는 '이태원 클라쓰'에 출연한 박서준(5.9%)이다.

장혜진·하동균·김형중 '네버 기브 업' 프로젝트



장혜진

하동균

김형중

가수 장혜진, 하동균, 김형중이 자살방지 캠페인 '네버 기브 업'(Never Give Up)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16일 유스타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이들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캠페인 송과 뮤직비디오를 19일 오후 6시 공개한다. 장혜진과 하동균이 듀엣 버전을, 김형중이 솔로 버전을 부른다. 두 곡은 향후 시리즈물로 이어지는 미니 다큐멘터리의 배경음악과 내년 발표 예정인 캠페인 관련 OST로도 수록될 예정이다.

에스24 LP 판매량 지난해 대비 73% 증가

LP의 인기가 숫자로 증명됐다. 16일 음반 판매 사이트 에스24는 최근 3년간 자사를 통해 판매된 LP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집계기간 1월1일~12월2일) LP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73.1% 증가했다. 장르별로는 가요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가요가 전년 대비 262.4%나 늘어났다. 팝은 53.1%, 클래식은 8.8% 올랐다. 에스24는 "내년에도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음반 발매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향후 LP 시장은 지속 성장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2회만에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선 tvN 퓨전사극 '철인왕후'

“역사 왜곡 우려” vs “뽕터진 신혜선 원맨쇼”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8%대로 출발하며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철인왕후'가 역사왜곡 등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은 극중 코믹한 연기로 시선을 끈 신혜선.

사진제공 | tvN

높은 기대만큼 잡음도 많다. tvN 토일 드라마 '철인왕후'가 12일 시작과 동시에 환호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회 만에 8.8%(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화제몰이에 나섰다. 일부 장면으로 인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과 논란에도 휩싸였다. 제작진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급히 사과해 논란은 일단락된 분위기이지만 드라마를 둘러싼 시청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K드라마 시대에 역사 왜곡이 웬 말”  
드라마는 현대를 사는 요리사의 영혼이 사교로 조선시대 중전의 몸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의 판타지 퓨전사극이다. 철종과 신정왕후 등 실존인물을 극중 캐릭터로 내세운 드라마는 신정왕후를 미신 맹신자로 묘사하는 등 시청자들로부터 역사 왜곡의 우려를 자아냈다. “조선왕조실록도 한낱 ‘지라시’네” “인제

실존인물 신정왕후를 미신 맹신자로 묘사...제작진 사과  
신혜선 물오른 코믹연기에 시청률 8.8% 기본 좋은 출발

까지 종묘제례악을 추가 할 거야” 등 일부 대사는 문화유산을 폄하했다는 비판도 잇따라 받고 있다.

이에 제작진은 16일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 문제된 내용을 삭제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거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 기준 2248건에 달하는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신정왕후의 후손인 풍양 조씨 종친회도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한류 붐을 타고 한국드라마가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상황에서 파장이 커질 것이라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철

인왕후’는 중국의 웹소설을 원작 삼은 웹 드라마 ‘타자비승직기’의 리메이크작이다. 하지만 웹소설이 한국인 관련 부정적 표현 등 ‘혐한 논란’에 휩싸인 전작이 드러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자칫 해외 시청자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전파할 수 있다”며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아직 비난은 일러” ‘신종론’도 제기

흔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코믹한 매력에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신혜선의 연기력이 인기의 원동력으로 떠올랐다. 신혜선은 중전 몸에 들어간 바람둥이 남성을 연기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신혜선 원맨쇼’라는 극찬까지 받을 정도다. 이에 힘입어 단숨에 8% 시청률을 넘어선 드라마는 역대 tvN 금토드라마 첫 방송 시청률 2위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제작진이 일부 내용과 관련해 개선의 의지를 드러낸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신종론’도 커지고 있다. 제작진은 “리메이크 방영권 구매 당시 원작소설의 한국 관련 발언 논란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원작과는 다른,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믹 판타지라는 장르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실존인물을 그대로 사용한 점이 시청자 시선을 자극했을 것”이라며 “상상을 기반으로 한 판타지 드라마에 역사적인 사실을 과도하게 대입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해치·BTS... 'K 콘텐츠' 일본 지상파 TV 공략

사극 '해치' 내년 2월 NHK 방송  
TBS는 방탄 독점 인터뷰 이례적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일본 안방극장을 통해 현지 팬들의 시선을 노린다. 정일우가 주연한 사극 '해치'와 그룹 방탄소년단의 TV 독점 인터뷰가 지상파 방송 채널에서 방송된다. 특히 시청자의 눈길을 집중시킬 수 있는 주말 밤 시간대에 편성한다는 점에서 한류 콘텐츠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치'는 내년 2월14일부터 매주 일요일 밤 11시 현지 대표적인 방송사인 NHK의 종합채널 전파를 탄다. '해치'는 정일우를 비롯해 고아라, 권율이 주연해 2019년 SBS가 방송한 드라마이다. 정일우의 군 제대 복귀작이었던 드라마는 무수리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가 과거 준비생과 사원부 다모 등과 함께 불의에 맞서 왕좌에 앉기까지 이야기를 그리며 평균 8%대(닐슨코리아) 시청률로 화제를 모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방탄소년단

감상선암 극복한 엄정화... '섹시 디바'의 귀환

22일 신곡 '호피무늬' 발표...3년만  
개코 작사·화사 피쳐링 컴백 지원

'섹시 디바' 엄정화가 3년 만에 화려하게 돌아온다. 감상선암 수술로 발성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가 '절친'들의 도움으로 신곡을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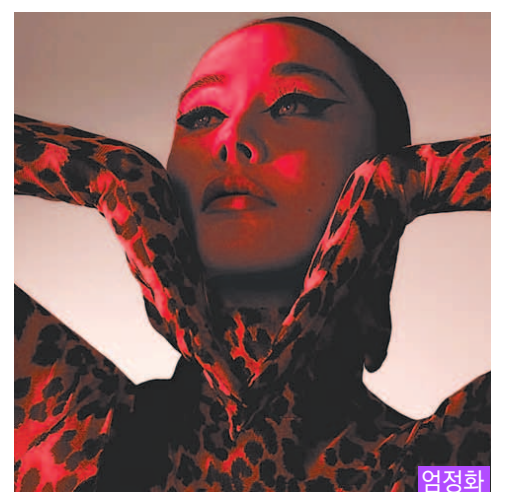
16일 음원 제작을 맡은 아메바컬처와 카카오톡에 따르면 엄정화는 22일 새 디지털 싱글 '호피무늬'를 내놓는다. 신곡은 2017년 발표한 정규 10집 '더 클라우드 드림 오브 더 나인'(The Cloud Dream of the Nine) 이후 3년 만이다.

'호피무늬'는 '엄정화표' 댄스곡으로 개코가 작사와 프로듀싱을 맡았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개코가 엄정화를 떠올리며 곡을 썼다.

아메바컬처 측은 “긴 공백기를 거친 만큼 한층 더 능익은 엄정화만의 독보적인 스타일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집대성한 신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엄정화가 신곡을 발표하기까지 발판이 되어준 이들이 있다. 그와 함께 올해 가을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그룹 환불원 정대의 멤버인 이효리·화사·제시이다.

엄정화는 당시 방송에서 “(수술 후)성대가 붙지 않고 벌어져 있다. 공기가 계속 새니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5월 감상선암 초기 판정에 수술을 받은 뒤 왼쪽 성대 신경이 일시 마비돼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엄정화는 “정



엄정화

신병에 걸릴 것 같았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노래를 못하게 되니까 더 노래하고 싶어졌다”고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발성이 제대로 되지 않던 그가 꾸준히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며 녹음하는 과정에 환불원정대 멤버들과 진행자 유재석 등이 위로와 격려로 힘을 불어넣어줘 감동을 안겼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화사는 엄정화 신곡에 피쳐링한 것은 물론 뮤직비디오에까지 출연했다. 최근 촬영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우정의 시너지를 과시했다.

엄정화는 29일과 31일 각각 열리는 'MB 방송연예대상'과 'MBC 가요대제전'에서 신곡 무대를 펼칠 전망이다. 환불원정대도 스페셜 무대로 다시 한번 뭉치는 만큼 엄정화와 화사의 콜라베이션 무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